



1. 줄라이칼럼 자매 디렉터 박소영과 박소정은 영국 던롭 오리지널 어워즈 영국 최고 여성복상 수상을 계기로 아트 스튜디오를 설립하였습니다. 패션디자인과 패션악세사리를 전공한 박소영과, 순수미술과 패션테크놀로지를 전공한 박소정의 생일인 7월, 두 자매의 여행이 영감이 되어 크래프트먼쉽(Craftmanship)을 바탕으로 칼럼(Columm)과도 같은 컬렉션을 써 나가고자 만든 하우스 줄라이칼럼, 저희의 공식 데뷔는 2021FW 서울패션위크 제네레이션 넥스트 선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네레이션 넥스트 3회, 서울컬렉션으로 2회만에 중진 브랜드로 성장하여 서울패션위크 오프닝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파트너쉽을 통한 플레디스(Hybe-Pledis) 아티스트 세븐틴(Seventeen)의 의상과 월드투어 콘서트 프로젝트를 진행, 아틀란타 디자인 센터에서의 패션브랜드 최초 협업 트렁크쇼, 메타버스 제페토(Naver Z-Zepeto) 프로젝트 모드 엣 파리(Mode at Paris)를 통한 방돔(Vendom) 패션쇼 등 다양한 분야와의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렉터의 어린시절은 부모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취향을 공감하며, 영감의 원천이 되어온 다양한 언어의 흥미로운 책과 원단, 종이더미가 가득 쌓여 있던 재단테이블, 줄지어 걸려있던 디자인된 광목 샘플들, 그리고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던 백스테이지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하우스 줄라이칼럼안에서 우리는 어린시절 앨범에서 찾아보며 아버지가 입던 바랜 셔츠, 출근하는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모노톤의 정장들 이제는 우리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손뜨개 컬렉션을 매 시즌 우리만의 언어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패밀리 헤리티지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성장중인 줄라이칼럼은 최근 2024FW 서울패션위크 오프닝쇼 선정을 통해 ＂호모 아키비스트” 라는 제목으로 기록과 계승에 대한 고찰을 과거의 실타래를 엮어 미래를 직조하고 지금 또한 이어지고 있는 시대정신 속에서 개인의 성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줄라이칼럼 하우스의 비지니스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발걸음과 과정을 중요시하며 책임감 있는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사회적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작품은 인하우스에서 디자인 개발, 패턴, 봉제, 수공예 작업과 포장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줄라이칼럼은 모든 한국 표준과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줄라이칼럼 컬렉션은 대부분은 아카이브 데드스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홍보 목적의 환경보호가 아닌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없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컬렉션과 제품 개발에는 아카이브 패턴을 시대와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시각의 재해석과 개발과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스크랩과 오프 컷을 저장하고 재사용합니다.

줄라이칼럼의 목표는 장인 정신과 디자인 개발 모든 면에서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줄라이칼럼은 시대와 계절을 초월한 작품을 디자인합니다. 낭비를 피하고 세대를 걸쳐 대물림되는 끊임없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갑니다.

2. 줄라이칼럼의 Spring/Summer 2025 Ready to Wear 컬렉션은 한국의 역사를 컬렉션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현대 한국의 상호 연결성을 탐구, 선비(Seonbi)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비는 유교 사상을 체현한 학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착용했던 전통 남성복의 정교한 전통 패턴 커팅 기법을 재편집하였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고귀함을 상징하는 옥을 모티브로 한 공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받은 옥고예 장인 김영희 선생님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궁중 장신구, 문양을 응용 전통기술에 대한 가치를 향유하고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계승적 전통문화와 패션의 만남을 보편적 접근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공예와 의복은 한국 역사의 일부이며, 이번 컬렉션은 현대 생활에서 전통이 갖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줄라이칼럼은 세계인의 공통과제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장서는 재생소재 활용을 위해 제주 삼다수와 협력,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이번 컬렉션의 일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공간의 움직임과 변위'를 탐구하는 현대 한국 작가이자 조각가인 서도호 작가의 영향은 설치 작품에서 주로 반투명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가 컬렉션의 레이어링과 패브릭 활용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와 역사를 강력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이 상호 연결성을 유쾌하게 탐구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현대 내러티브를 형성하는지 질문하고 성찰하도록 선보이고자 합니다. 컬렉션의 각 제품은 패션, 예술 및 공예, 한국 전통이 융합된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줄라이칼럼 브랜드의 다 차원적인 장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